
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2년 1월 17일(월) 총 2매			
담당 부서 해양항만과	담 당 자 • 항만계획팀장 정 현 ☎ 440-4816 • 담당자 신성인 ☎ 440-4819	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다시 태어날 강화 창후항, 어촌다움으로 돌아올 것
- 인천시 매립실시계획 승인, '창후항 어촌뉴딜사업' 본격 추진 -

인천광역시는 강화군에서 신청한 ‘창후항 어촌뉴딜사업’ 매립실시계획 건에 대해서 승인하고 1월 1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매립실시계획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써, 강화군에서 제출한 신청서가 타당성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하여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.

창후항은 2014년 교동대교 개통 후 교동도 간이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, 항구의 물류 기능까지 쇠퇴하면서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됐다.

이에 따라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,675.17㎡ 규모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어구건조장,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 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창후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, 지역경관을 개선시킬 예정이다.

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어업활동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에게는 관광편의를 제공하고,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.” 고 말했다.

[붙임] 창후항 어촌뉴딜사업 매립부지현황

붙임 **매립부지 현황**



사업 전



사업 후

